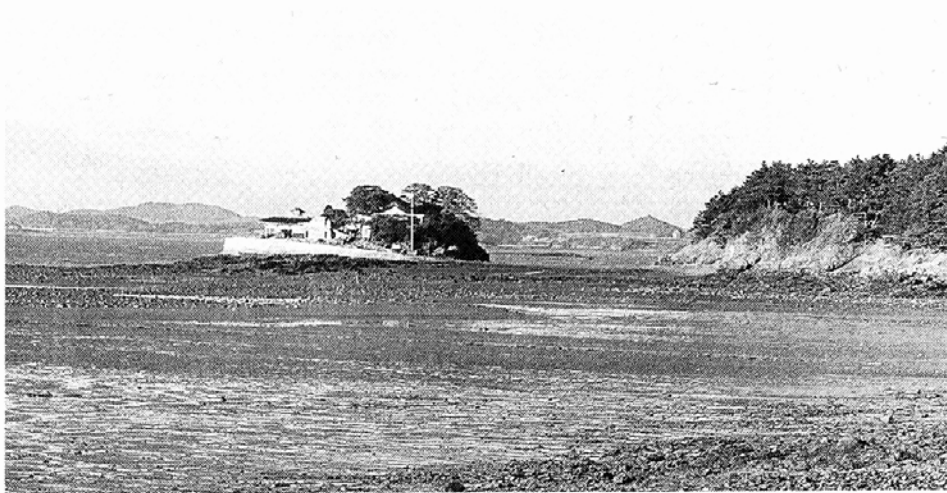


100회 연재 '수미산' 현장 간월암 문학기행



◇작가 고은씨가 소설 '수미산'의 무대인 간월암 법당에서 '우주와 나'를 주제로 불교와 문학에 대해 열강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간월암' 하나가 그대로 섬인 간월도 전경. 피안도 연화대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누가 주체이고 객체인가”

작가 고은 특별강연 '우주와 나' 요지

우리는 만공스님의 작은 섬에 함께 왔습니다. 오늘 작은 달밤의 위성을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간월암에 함께 온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일생을 세 마디로 축약하면 나서 만나고 죽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이겠습니까. 고도의 3차원 이전인 2차원의 세계에 만남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뜻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흔히 우리는 '극단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극단까지 가야만 비로소 극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태극(太極)을 가이만 무극(無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병폐인 소승(小乘) 대승(大乘) 따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 두가지를 다 견안을 새로운 신승(新乘)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중도로 가야합니다. 아울러야 합니다. 아울러야 새로운 불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승에서 얘기하는 <구사론>과 대승에서 얘기하는 <법화경> <열반경>이 한통속이어야

대과에서 결여된 것을 배우어 줄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다. <화엄경>은 우주는 절대속에서 들여다보고 자기이론이나 현대 물리학의 가능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리일 뿐입니다. 우주론에 의해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가 설계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우주로 만나는 시대가 옵니다. <화엄경>은 우주는 절대속에서 <천자문>에도 하늘천(天) 따지(地) 검을현(玄) 누루황(黃)입니다. 우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미산은 무엇입니까. 고대인도에서 발생해서 산과 열대지

그러니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중국 문헌서사는 긴 질문에 항상 딱 한마디만 답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이 '일자관(一字觀)'입니다. 문헌서사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도(道) 법(法) 진리(真理)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문헌은 '거(去)'라고 말합니다. 불법승(佛法僧) 삼보에서 법은 무엇입니까. 법(法)자를 한자로 보면 물 수(水)에 갈 거(去)입니다. 그저 물 흐르듯대로 가는 것입니다. 운문은 법을 묻는 질문에 그저 '가거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운회하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소설 수미산을 쓰면서 우주적인 자아 우주속의 나를 넘나

들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망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뀌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소설 수미산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인담스님이라는 근본없는 사람을 뱉습니다. 법사 은사도 없는 이른바 정통을 무시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고려시대 실존했던 담인스님이 꿈에 법계를 받았다고 전하는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리를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인' 스님의 이름을 순서를 바꿔 '인담'이라고 했습니다. 당에 유학하나 러던 충남 당진바닷가에서 원효스님은 해골의 눈빛을 보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도 해골바가지 눈에서 푸른빛이 나와야 한다는 그것이 도란 것입니다. 소설 수미산은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공간이 될 때까지 부처법만 만나 함께 가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밤을 내내 받아들여 자기 정화의 달밤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빈배에다 달빛 가득히 싣고 들어오는 배처럼 오면 됩니다.



◇덕송총림 방장 원담스님이 고은씨를 반갑게 맞고 있다.

서울·부산등서 100명 동참

“달빛아래 옥심씻은 무욕도 정진”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26일~27일(1박2일) 인기연재 대하소설 '수미산'의 현장 간월암을 작가 고은선생님과 화가 조항숙화백과 함께 떠났다. 연재 100회째이기도 해 더욱 뜻깊었던 이날 문학기행에는 서울 부산 애독자 100명이 동참했고 본사 김광삼사장등 임직원도 지리했다. 섬 그자체가 곧 절인 곳, 무욕도라고도 불리는 간월암은 진정 옥심대신 보름달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범종과 산신각 불사가 한창이었다. 간월암이 자리한 간월도는 연꽃 한송이가 피어 있다고 해서 연화대라고도 했고, 백제때는 피안도와 일컬어졌다고 전한다. 관세음보살이 본존으로 모셔진 20여명의 법당에는 초막법당을 창건한 무학스님과 은사 나옹·지공스님, 41년 지금의 사사로 증창한 만공스님과 운력했던 벽초스님의 벽화가 볼만해 있다. 26일 밤 10시40분 시작된 문학기행 행사는 간월암 주지 원담스님과 본사 김광삼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고은선생님의 특별강연으로

“진리는 나 혼자 道通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우러야 새로운 불법으로 나옵니다 '수미산'은 부처님법 만나 함께가는 도반”

합니다. 오늘밤 이자리는 가을입니다. 막 대기로 쳐도 감동받게 되는 계절입니다. 여기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앞에서 '나라는 인간 개체는 얼마나 작은가' 하고 실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구한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계속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자아 '나'를 알기위해서 우주의 생성 변화 진화라고 하는 우주적인 체험에 심취했던 아인슈타인은 '현

방을 반영시킨 관념물입니다. 중생이 사는 곳에서 부처가 되거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 바다 넘섬부주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로 목계, 색계, 무색계가 사방에 펼쳐있는 상태입니다. 수미산 중심으로 퍼져 있는 우주가 실연계나 됩니다. 육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무색계는 없는것 같이 있는 곳입니다. 허공계에 뭐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은 천계에 가면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 즉 현안이 되는 것입니다.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축으로 이런 것이 사방에 퍼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0월 26일~27일 수덕사 간월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과 함께했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행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 크기 : 6cm x 7.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예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행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행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달력크기/26cm x 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행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행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